

# 왜, New Target 2030인가?

글, 사진 정용구 선교사

/ KWMA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장 & 협동총무

## 1. 들어가는 말

지난 시간 한국 선교계는 하나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선교에 우선 순위를 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한국선교의 한계와 불투명한 미래 선교에 대한 염려들이 실제 상황 속에 나타나면서 그 위기감은 점점 더해졌다. 그런 가운데 닥친 코로나19는 선교계에 큰 변화의 기폭점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지난날의 선교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부분에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미래 선교를 위한 다양한 담론들이 논의되었고, 모아진 중론들은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더 집중해야 할 영역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KWMA는 선교계에서 모여진 중론들을 각 영역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과 Action Plan을 요청하였고 이번 New Target 2030을 한국 선교계 안에 제안하게 되었다.

서구의 탈 기독교 시대를 맞서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한 선교를 위해 몸부림을 쳐보며 선포하는 New Target 2030은 오늘 선포를 통해 당면한 선교적 과제들을 분명히 하면서 기존 전략의 실제적인 열매를 기



대한다. 또한 세계 속의 건강한 한국교회와 비서구 교회와 같이 가는 한국교회의 선교가 될 것을 확신하였다.

## 2. 배경

지난 2023년 6월 13일~16일에 진행된 제8차 NCOWE (Nation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 세계선교전략회의, 이하 NCOWE) 전략 대회에서는 주요 선교 이슈 10개의 트랙으로 정했다. 이 10개의 트랙 모임의 시작은 2023년 1월 26일부터 하였고, 대회기간 KWMA 회원단체 리더십, 지역교회 목회자, 선교학 교수, 다음세대, 국제 선교 리더십들 600여 명과 각 트랙에서 논의된 내용을 현장에서 깊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제8차 NCOWE는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각 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과 Action Plan을 정하여 구체적인 실행이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를 이어가기 위하여 11차례 이상의 세미나(Seminar), 콜로퀴엄(Colloquium), 포럼(Forum) 등의 모임들을 가졌고, 다양한 소그룹들을 통하여 전문 위원들이 위원회

### 주요 프로그램

#### 1 | 성경강해 & 메시지



**이규현** 목사  
수령로교회



**이찬수** 목사  
분당우리교회



**정갑신** 목사  
백수향남교회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주승중** 목사  
주안장로교회



**최남수** 목사  
광명교회



**최성은** 목사  
지구촌교회



**황덕영** 목사  
새동명교회

#### 2 | 주제 강의

NCOWE 주제와 방향의 이유 / 세계기독교와 한국교회  
한국 선교사의 현황  
세계교회의 질문들  
변화하는 세계교회의 개념 이해  
세계 교회의 현황과 실제  
세계 기독교 속에서의 한국교회 가지는 질문  
최소전도지역 돌파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생태신학과 선교  
남겨진 과제, 이주민 선교  
한국 선교단체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이야기들  
새로운 선교사 운동  
다음세대 선교동원

한철호 선교사 (미션파트너스)  
홍현철 원장 (한국선교연구원)  
문상철 원장 (카리스 교회문화연구원)  
임대순 선교사 (GMP)  
김영섭 선교사 (GMS)  
한종석 선교사 (GBT)  
진기영 원장 (아일랜드 선교연구원)  
이명혁 교수 (한신대학교)  
최현주 선교사 (위대국제선교회)  
김동환 선교사 (GBT)  
손창남 선교사 (GMP)  
김장영 선교사 (DCC)

#### 3 | 케이스 스터디

몽골 이대학 선교사 (국제물부리선교회) | 태국 김익만 선교사 (GMS)

#### 4 | 선교사 스토리

이준성 선교사 (GMP America, 멕시코)  
조정희 선교사 (PCK)  
Cristian Castro Hernandez 목사  
(남미 COMBAM)

David L. Ro 목사  
(The chair of the Asia 2022 Congress)  
양동철 집사 (거룩한빛 광성교회)  
김요한 선교사 (GMP)

### 10가지 트랙

트랙1

다음세대 선교동원 | 오늘날 한국교회와 청년대학생 사역의 현실에서 다시 그들 스스로가 선교의 주체가 되기 위해 새로운 도전과 시대가 일어나야 한다.

트랙2

다마스포라 | '다마스포라'라는 지구촌 시대의 핵심 현상이며 하나님의 섭리이다.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과 범주로 확대되어가며 새로운 형태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트랙3

디지털 세계와 선교 | 사이버 세계와 신기술의 도전 과제 및 기회를 이해하고 글로벌 선교를 가속화하기 위해 어떻게 기술을 최적화하고 연결시킬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트랙4

변화 속의 선교단체 | 선교단체의 구조와 역할, 운영방식이 새로운 선교 생태계와 한국교회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본질적인 성찰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트랙5

변화하는 여성 선교사 | 변화하는 여성선교사의 정체성 재정립과 남녀선교사의 파트너십 강화, 세계 선교가 요구하는 한국 여성 선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하는 논의와 실천사항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트랙6

선교적 교회로 가는 로드맵 | 교회가 선교적 본질을 이해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전환되기 위한 인식의 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

트랙7

자신화 | 선교지에서 자신화를 이루도록 돕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있었으나 이론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적 적용, 사역 연계 결과물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트랙8

전방개척선교 | 미전도, 미복음화, 최소 복음화 지역에서 성경 중심의 자생적 공동체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트랙9

텐트메이킹 & BAM | 일터 영성의 세계관을 가지고 선교가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과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트랙10

현자인 중심의 통번역 선교 | 파트너십, 입구전략과 출구전략, 자생적으로 배가되는 교회개척, 선교사의 연행일치, 등 반지 관계 등 내부자 중심의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

59

를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세워진 목적과 목표를 현장에서 이루기 위하여 유사 영역의 전문 그룹들이 통섭(統攝)의 시간을 가지면서 협의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역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 2023년 제8차 NCOWE(2023년 6/13-16일) 이후 주요 후속 모임

No	일자	참석자	인원	장소
1	10월 2~4일	법인이사, 교단추천 목회사, 시니어선교사	목사 10명, 선교사 10명	스카이베이 호텔(강릉)
2	10월 5~6일	운영이사, Modality 본부장(이사장), 시니어 선교사, Sodality 리더	교단 12명, 선교단체 11명	쉐라톤 호텔(송도)
3	11월 15일	선교적교회로 가는 로드맵 트랙 (선교적 교회 관심자) *2024년 6/11-12, 2차 모임(60명)	20명	KWMA 세미나실
4	11월 23~24일	KWMA 선교대학원 교수회	30명	노보텔 엠베서더(용산)
5	12월 5일	NCOWE 보고회(주관: 한교총), 지역교회 담임목사	목사 100여 명	연세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6	12월 12~15일	KWMA & KWMC & KWMF	15명	스페인 바르셀로나

#### 2024년

7	1월 24일	파송 단체의 선교사 훈련원 원장	20명	KWMA
8	5월 1~4일	비서구 교회 리더들(COALA)	40명	방콕
9	10월 21~23일	한국선교지도자포럼	100명	필그림하우스
10	10월 24~25일	교단 선교회 리더십 초청 간담회 교단 사무총장, 선교부 부장 및 총무	30명	엠베서더 서울 풀만
11	11월 11~13일	해운대 포럼 교회, 선교단체, 선교학교수, 대표 등	50명	부산 해운대

KWMA는 한국교회가 선교 영역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4가지 선교적 영역을 설정하고 2024년 11월 13일 오전 11시, 해운대 포럼에서 New Target 2030 즉 한국 선교계가 집중해야 할 4가지를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한국교회가 파송한 22,400명의 현장 선교사 앞에 'New Target 2030'을 선포하였다.

집중해야 할 4가지 선교 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같이 가는 선교 운동을 실시한다.

둘째는 국내에 이주민 260만 명 대부분이 UPG(Unreached People Group)임을 인정하고 지역교회가 이들에게 선교한다.

셋째는 복음화율이 낮은 다음세대(10-39세) 복음화와 선교 계승을 위한 동원을 우선 한다.

넷째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융합을 통해 인터넷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인터넷 선교의 비전을 실현한다.

### 3. 해운대 포럼, New Target 2030 선포식

KWMA 주최로 수영로교회가 후원한 ‘해운대 포럼’이 2024년 11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해운대 웨스턴 조선 호텔에서 열렸다. 해운대 포럼은 KWMA 법인이사, 운영이사, 정책위원, 교단선교부 총무, 선교단체 대표, 선교학 교수, 다음세대 리더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해운대 포럼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논의된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최종 정리하고 한국교회에 선포하는 현장이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 왜 그 일이 필요한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논찬과 현장에 모인 리더십들과 최종 라운드 테이블을 가지고, 구체적인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우리가 왜 이 일에 집중해야 하는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KWMA는 한국교회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4가지 선교영역으로 국제적으로는 ‘비서구 중심의 선교운동’, 국내적으로는 ‘이주민 선교’, 그리고 선교의 지속성과 확장을 위해 ‘다음세대 선교’와 ‘디지털 선교’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비서구 중심의 선교운동’에 대해서는 한철호 선교사(미션파트너스)를 좌장으로 박형진 교수(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가 ‘World Christianity 시대의 Polycentric Mission: Global South 선교’에 대해서 발제하고,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의 논찬과 박보경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의 사례발표, 한충희 선교사(TIM선교회)의 액션플랜 발표가 있었다. 두 번째,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문창선 선교사(위디국제선교회)를 좌장으로 손승호 선교사(울산경남KWMA)가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과 Mission-Minded Christian’에 대해서 발제하고,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의 논찬, 문창선 선교사의 액션플랜 발표가 있었다.

세 번째, ‘다음세대 선교’에 대해서는 김태구 목사(학원복음화협의회)를 좌장으로 박민규 간사(선교한국)의 ‘MZ세대와 캠퍼스 선교’, 이훈 선교사(TCK WAVE)의 ‘MK와 디아스포라 선교’, 박성민 목사(청년선교)의 ‘청년 사역과 선교’ 발제가 있었으며, 김선민 목사(삼일교회)의 논찬, 김태구 목사의 액션플랜 발표가 있었고, 네 번째, ‘디지털 선교’에서는 박열방 선교사(FMnC)가 좌장과 발제를 맡아서 ‘디지털과 AI 시대에 맞는 선교 흐름과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유근재 목사(주안대학원대학교)의 논찬, 정용구 선교사(KWMA협동총무)의 액션플랜 발표가 있었다.

포럼 마지막 날, Wrap up 세션을 통해 각 주제의 액션플랜을 확정하고, 확정된 내용으로 ‘New Target 2030 선포식’이 있었다. ‘New Target 2030’은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 100만 자비량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한 기존의 ‘Target 2030’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한국 선교계가 집중해야 할 4가지 주제로 업그레이드시킨 선교운동이다.

선포식에서 KWMA 법인이사장 이규현 목사가 ‘New Target 2030’의 배경을 소개하며, 이 운동이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4가지 주제에 관하여 한충희 선교사가 ‘비서구 중심의 선교운동’, 문창선 선교사가 ‘이주민 선교’, 김태구 목사가 ‘다음세대 선교’, 박열방 선교사가 ‘디지털 선교’에 관한 액션플랜을 발표하였고, 강대홍 사무총장이 ‘New Target 2030’을 통해 한국교회의 선교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KWMA 대표회장 주승중 목사는 포럼의 마지막에서 모두가 새로운 선교운동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할 것을 권면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하였다.



#### 4. KWMA와 선교타임즈의 'New Target 2030' 특별기획 기사

KWMA와 선교타임즈는 이번 'New Target 2030'을 일선에 있는 선교사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획특집으로 6회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 1회 '왜, New Target 2030인가?' (정용구 선교사, KWMA 협동총무)
- 2회 글로벌 사우스 (노성천 선교사, KWMA 협동총무)
- 3회 이주민 선교 (문창선 선교사, 국제위디선교회 대표)
- 4회 미래선교 (박성민 목사, (사) 청년선교 본부장)
- 5회 인공지능, 디지털 선교 (정용구 선교사, KWMA 협동총무)
- 6회 New Target 2030을 통한 건강한 선교생태계 만들기 (KWMA 강대홍 사무총장)

#### 5. 나가는 말

2006년에 시작되었던 'Target 2030'(10만 선교사 파송, 100만 자비량 선교사 양성)은 1-5차에 걸쳐서 전방 개척 주력기(2006-2010), 선교도약기(2011-2015), 전력투구기(2016-2020), 고도성장기(2021-2025), 성숙 및 제3시대 준비기(2026-2030)를 꿈꾸며 준비하였다. 하지만 급격한 세상의 변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세상의 변화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수고가 있었기에, 그 열정을 이어받아 'New Target 2030'을 꿈꿀 수 있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선교'를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기 위한 또 한 번의 준비와 도약은 위기의 시대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될 것이다. 'Target 2030'을 시작할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첨예한 이슈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지만, 우리보다 더욱 책임감 있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룰 것이라 기대한다. 